

스마트 대형폐기물 배출 '빠기'

전주시, 스마트폰 앱 이용 배출·처리하는 시스템 본격 시행

대형폐기물 배출 시 신고부터 결제, 수거까지 모바일로 편리하게 처리하는 배출 시스템이 시행된다.

전주시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대형폐기물을 배출·처리하는 스마트 대형폐기물 배출시스템 '빠기'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빠기' 서비스 시행으로 시간 시청 누리집 또는 전화를 통해 신고한 후 필증을 부착해 배출·처리했던 대형폐기물 처리절차가 모바일로 비대면 신고 후 처리까지 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다.

'빠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의 플레이스토어(Android)나 앱스토어(iOS)에서 앱을 무료로 내려받으면 된다.

이후 폐기를 처리 시 폐기할 물품을 배출하고 앱에 배출장소를 입력한 뒤 배출 물품을 촬영해 올리면, 앱 내부 사물 인식 AI기능을 통해 결적이 자동 산출되어 금액을 확인하고 결제할 수 있다.

결제 후에는 배출번호가 생성돼 담당자와 수거업체에 전달되기 때문에 별도의 필증 부착 과정 없이 배출번호만 기재해주면 배출신고가 이뤄지게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월 대형폐기물 수거 모바일 앱 개발업체인 ㈜갈다(대표이사 고재성)와 '빠기'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스템 도입을 준비해왔다.

최병집 전주시 정원도시지원순환본부장은 "'빠기' 서비스 시행으로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중고가구 등 자원의 재활용 순환까지 연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일상의 불편을 줄이는 공공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 발표합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지난 23일 오전 10시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에 방문해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주시, '청년쉽표, 프로젝트' 참가자 모집

15일까지 제19기 60명

전주시가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 영향으로 취업난이 가중된 청년들의 심리치유와 자존감 회복을 돕는다.

시는 오는 15일까지 심리 상담과 경제적 지원을 통해 미취업 청년들의 재도약을 응원하는 '청년쉽표, 프로젝트'의 제19기 참가자 60명을 공개 모집한다.

'청년쉽표, 프로젝트'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 노동시장 침체로 힘겨워하는 지역 청년들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심리치유와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응원을 보내는 전주시의 대표적인 청년 지원 정책이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는 전문 심리상담기관에서 실시하는 개인별 심리검사와 그룹별 집단 상담을 통한 치유의 시간이 제공된다.

시는 힐링캠프와 사후 심리검사, 청년쉽표 에세이를 통해 심리상담 전후 심리적 변화를 스스로 확인하고 기록해보면서 재도전과 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청년쉽표 참여자들에게는 취업준비와 구직활동에 드는 비용, 생활비 등으로 쓸 수 있도록 3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씩 총 150만 원의 활동수당이 지원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듣고, 보고, 그리는' 첫마중길여행자도서관

전주시, 지역청년예술가 니나킴 일러스트 작가 초청 디지털 드로잉 교육 진행

전주시민과 전주를 찾는 여행자에게 휴식형 독서공간을 제공하고 전주를 알릴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전주시는 오는 4월 7일부터 6월 2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첫마중길여행자도서관에서 지역청년예술가인 니나킴 일러스트 작가를 초청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드로잉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디지털 드로잉 교육은 아이패드 활용에 '책과 도서관 이야기', '나의 여행이야기'를 주제로 나만의 작품을 만들고, 완성된 작품을 추후 엽서 등 첫마중길여행자도서관 체험상품으로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니나킴 작가로부터 디지털 드로잉 기초 과정으로 애플리케이션 '프로크리에이터' 사용 방법을 배우며 △자기의 캐릭터 만들기 △도서관과 여행사진을 배경으로 그림 그리기 등 도서관과 여행을 주제로 나만의 작품을 직접 그려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니나킴 작가는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KBS 강연 100도씨, 네이



첫마중길여행자도서관 전경.

버 씬 포스트, 박이슈 잡지 등에 일러스트 작업 활동 외에도 에세이 도서 '사라지고 싶은 날', '어른은 아니고, 서른입니다' 등의 저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시는 향후 첫마중길여행자도서관에서 '듣고, 보고, 그리는' 여행자도서관'을 주제로 △듣다 '지금 바로 세계여행' 여행작가 초청 강좌 (3~12월) △보다·사진작가와 함께 하는 스마트폰 여행사진 촬영 교육

(5~6월) △그리다·하반기 디지털 드로잉 프로그램(9~11월) 등 다채로운 여행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최라기 전주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은 "앞으로도 첫마중길여행자도서관민의 차별화된 특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전주시민뿐만 아니라 전주를 찾는 여행자들에게 전주를 알릴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함께 쓰는 희망' 전주시 성인문해교육기관 책자 발간

전주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성인문해교육을 함유할 수 있도록 전주지역 22개 성인문해교육기관을 안내하는 '함께 희망을 써내려가는 전주시 성인문해교육기관' 책자를 발간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성인문해교육 운영 기관 담당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발간된 이 책자에는 각 기관 약도와 버스 노선, 교육 일정과 학습 단계 등을 수록해 문해교육의 접근성을 확대했다.

책자에 수록된 문해교육기관 지도는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 어떤 문해교육기관이 자리하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이 책자는 △금암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관 8개소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관 3개소 △삼천생활문화센터 등 생활문화센터 2개소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라북도지부 등 민간단체 2개소 △다운장애인평생교육원 등 야학기관 6개소 △전주시평생학습관 등에 비치될 예정이다.

그동안 성인문해교육을 알지 못해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신규 문해학습자 발굴을 위해 도서관과 주민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배부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성인문해교육을 운영·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전주시 성인문해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문해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써왔다.

현재 22개소 기관에서 약 500여 명의 학습자가 배움의 기회를 함께 누리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교육 진행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려동물 문화교실이 운영된다.

전주시는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줄이기 위해 동물보호 인식개선 및 펫티켓 강화 등을 위한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지난 31일 밝혔다.

반려동물 문화교실은 유기동물 입양

자와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입양교육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동물권교육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동물 전문가를 초빙해 진행되는 입양교육의 경우 반려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부터 올바른 반려동물 공공예절, 생애 주기별 반려견 의료 상식 등에 대한 것으로 △건강교육 △샐터 및 사회화 교육 △반려동물용품 만들기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동물권 교육은 올바른 반려생활과 길고양이 공존에 대한 교육을 통해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8일부터 6월 24일까지 전주시 유기동물보호센터 10개소 중 하나인 서신동물병원의 원장과 전주시 길고양이보호협회의 대표가 7개 초등학교를 찾아가 교육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시는 반려동물 문화인 '펫티켓' 문화 정착을 위해 아파트 등에 홍보물을 배부하고, 버스 승강장과 시내버스 내 전자노선도 등을 활용한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